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참가

전시장 메인위치에 대규모 부스... “무한한 가능성 제시”

10년 연속 참가... 42평 단독 부스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단계별 전시
생산능력 등 한계없는 성장 강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미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주요 도시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전 세계 바이오제약 업계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 시간) 나흘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리미트리스 투게더’를 주제로 개최된다. 총 1140여 개의 기업이 전시에 참가한 가운데 행사 기간 동안 1만5000여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온라인으로 개



미국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된 2020·2021년 제외)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 중이다. 팬데믹 여파를 딛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시장 메인 위치에 대규모 부스(140㎡, 42평)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부스의 테마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정하고,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축의 확장을 통해 한계 없는 성장을 구현해 가

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표현했다.

부스 내 벽면에는 방문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반응하는 조명을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단계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키오스크 및 VR(가상현실) 공장 투어 기기를 통해 인천 송도의 생산 설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스내 ‘지속 가능성 벽’을 설치,

높은 성장 속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활동과 계획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CDMO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부스 한 칸에는 3개의 미팅룸을 마련,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부스를 찾는 고객사 및 잠재 고객사의 방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CJ온스타일

‘뷰티 올스타 대전’ 개최

CJ온스타일은 19일까지 상반기 뷰티 히트 상품 할인전인 ‘뷰티 올스타 대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시 10%, 5만 원 이상 구매 시 13%로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구매 금액대별 적립금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 록시땅, 바디샵 등 대형 브랜드와 핑크윈더 등 최신 트렌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뷰티템까지 총 500여개의 브랜드가 참가했다.

아울러 일주일 간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도 뷰티 특집으로 집중 편성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타콘즈 이강민 대표(왼쪽)와 CGV 심준범 국내사업본부장(오른쪽)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모다모다, 유해성 논란에도 쿠팡 위탁판매 개시

염색 샴푸시장 1위 브랜드 정조준
소비자 단체들 사용금지 성분 지적

‘1,2,4_THB’ 성분 유전독성 논란이 불거지는 헤어케어 제품 기업 모다모다가 소비자 단체 측의 날선 질타에도 불구하고 쿠팡 위탁 판매로 정면 돌파하고 나섰다.

모다모다는 이번주부터 쿠팡에서 자사 제품의 위탁 판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결제액 기준 네이버, G마켓, 11번가를 제치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1위를 차지한 e커머스 업체다.

모다모다는 지난 10일, 각 언론사에 미국과 중화권의 주요 외신들이 모다모다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벤징가 등 주요 언론사가 미국 대형 유통 채널인 월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입점했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자연 갈변으로 머리색을 바꿔주는 모다모다샴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모다모다가 쿠팡에 공식 입점하기로 하고 쿠팡 위탁판매를 개시한다.

/모다모다

이번에는 쿠팡에 공식 입점함으로써 국내서 브랜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모다모다 측에 따르면 이번 위탁 판매는 지난해 대규모 품귀 사태 이후 등장한 고가로 되파는 비공식 리셀러 통제 및 유통 채널 관리 등을 고려해 자사 물 위주의 판매 정책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제 쿠팡의 판매자인 셀러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모다모다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모다모다는 “고객 구매 편의성 확대

차원에서 입점을 결정했다”고 말한 데 이어 배형진 대표가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한 만큼, 지금껏 유지해온 소위 염색 샴푸 시장의 확고부동한 1위 브랜드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래소비자행동 등 소비자 단체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안전 대책 강구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모다모다 샴푸 사용금지 처분 결정에 대한 유예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가 공개질의서로 대응하며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소비자행동 등은 유럽집행위원회(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판단을 참고, 식약처가 ‘1,2,4_THB’를 유전독성 사용금지 성분에 등재하는 행정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따라 “규제개혁위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배경과 판단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규제 개혁위가 ‘1,2,4_THB’ 관련 본회의 당시 당사자인 모다모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발언했으며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 주관으로 유전독성 여부를 묻는 토론회가 예정됐지만 모다모다 측이 반발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고 토론회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 전에 모다모다가 대형 유통 e커머스사에 논란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지속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은미 기자

CGV-메타콘즈

NFT 시장 활성화 맞손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GV가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 선두 주자인 메타콘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CGV는 메타콘즈와 지난 10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CGV 심준범 국내사업본부장, 메타콘즈 이강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NFT 관련 마케팅 기획 행사를 함께 진행 예정이며, CGV를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百貨

‘푸빌라 NFT’ 완판 행진

신세계백화점은 대표 캐릭터인 ‘푸빌라’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1만 개 제작해 지난 11일 세 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모두 1초 만에 완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NFT는 6가지 등급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라운지 입장, 발렛 주차, 쇼핑 할인 등 오프라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회원권이다.

NFT 등급은 랜덤으로 구매 당시에는 알 수 없으며 오는 18일 일괄적으로 발표된다. NFT 소유자는 소유기간 백화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차 판매 시 해당 구매자에게 혜택이 양도된다.

이번 푸빌라 NFT는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에서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무신사, 가품논란 뿌리 뽑는다... TIPA요원 전수 검사

매입·보관 중 해외 명품 검사
통과 제품 한해 부티크 등록

무신사가 가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협력해 국내로 공급되는 해외 명품을 전수 검사한다.

무신사는 TIPA 검사 요원들이 현재 경기 여주 물류센터에 매입·보관

중인 해외 명품을 검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TIPA는 지적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에게 수입 물품의 견본 감정을 의뢰하고, 수입된 물품을 전량 TIPA의 검사시스템을 이용해 검사한다.

앞서 무신사는 해외 브랜드에 대한 지적권 침해검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

해 지난 4월 TIP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이 시기 네이버 계열의 리셀 서비스 업체 크립과 가품 판매 논란 끝에 신뢰도에 타격을 입자 해외 명품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OU를 통해 TIPA의 특별회원이 된 무신사는 지적권 침해 검사를 비롯해 해외 명품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신사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TIPA의 협조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럭셔리 제품에 대한 검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에는 ▲프라다 ▲미우미우 ▲지방시 ▲토즈 등 해외 명품이 포함됐다.

무신사는 TIPA가 진행하는 명품 브랜드 지적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럭셔리 편집샵 서비스인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